



제이엠그린 '더블세이브S도마'

주부 CEO “행주질 필요없는 도마는 없을까”

‘도마 위에서 김치를 자를 때 행주질을 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대부분의 주부들이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고민이다. 이경미 제이엠그린 사장(54)이 ‘더블 세이브S도마’를 개발한 이유다.



이경미 제이엠그린 사장이 더블세이브S도마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식판처럼 도마에 구획을 나눠 과일즙이나 국물이 흐르는 것을 막고, 자른 식재료를 냄비에 쉽게 넣을 수 있도록 고안했다. 시간도 절약하고 식재료도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 사장은 “120도 고온에서도 제품 변형이 없어 식기세척기를 사용하거나 설거지할 때 뜨거운 물로 간단하게 소독할 수 있다”며 “올해 해외 공략을 강화하는 등 판로를 다양하게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력 상품으로 다용도 도마 개발 이 사장은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는 평범한 주부였다. 남편이 외환위기 때 사업 실패로 공장 문을 닫으면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전자업체 부품 검수원으로 일한 경험을 살린 것이다.

주부로 살면서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직접 제품 개발에 나섰다. 2002년 여성 속옷에 통풍이 잘 되도록 한 기능성 패드 개발이 대표적이다. 특허도 출원했다. 하지만 시제품을 만들고 판로를 개척하는 게 생각만큼 녹록하지 않았다.

2011년 제이엠그린을 설립한 뒤 사업 방향을 바꿨다. 인증받고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대신 쉽게 생산할 수 있고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선보이자는 것. 그래서 나온 게 ‘알알이 썬이라는 병동용

그녀의 발명 본능은... 120도 고온에도 변형 없어 도마에 분리형 수납 용기 갖춰 해외시장 공략도 본격화

기였다. 마늘 등 음식 재료를 칸칸이 나눠 넣고 냉장고에서 보관하다가 꺼내 밀 부분을 누르면 속 올라오는 제품이다. 최근 NS홈쇼핑 방송에서 ‘완판(완전판매)’ 되는 등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후속 제품은 2016년 개발한 도마다. 몇 차례에 걸쳐 제품 성능을 업그레이드했다. 소재는 수십 번의 실험을 거쳐 자체 개

발한 복합 폴리프로필렌(PP)이다. 칼로 자를 때 재료가 도마 바깥으로 튀는 일반적인 도마 소재(PP)의 단점을 보완했다. 보통 도마 제품들에 적용한 내열온도 70도를 120도로 높였다. 해외 시장을 겨냥해 고온의 식기세척기에 견딜 수 있도록 했다. 안전성에 민감한 해외 소비자를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독일 식품용품법(LFG) 인증도 받았다.

◆기능성 도마로 해외 시장 공략 이 도마의 가장 큰 기능 중 하나는 도마 오른쪽에 분리해 접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수납용기 2개를 따로 둔 것이다. 별도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 야채 등을 자를 때 탕탕

제이엠그린	
설립	2011년 1월
위치	경기 용인시 기흥구 흥덕동
제품	더블세이브S도마
특징	편리한 수납용기 포함 식기세척기에 사용 가능

소리가 나지 않고 나무 도마처럼 목직한 질감이 느껴지는 것도 장점이다. 싱크대와 맞닿는 바닥 부분은 실리콘으로 처리해 미끄러지지 않는다. 직사각형 모양의 도마 3개 면에 출자 형태 눈금을 냈다. 오이 등 재료를 정확하게 자르고 장식을 만들 때 유용하며 좋다. 김치 국물까지도 먹을 수 있게 도마머리 부분에 액체배출구를 추가했다. 색상은 다크그레인(회색)과 솔라 오렌지(주황) 등 두 가지. 무게는 690g으로 가볍다.

G마켓 등 온라인몰과 경기 시흥시 바라지마켓 등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미국, 싱가포르, 중국 등에 이어 올해 일본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올해 매출 목표는 지난해보다 두 배 많은 20억원이다.

이 사장은 김자국이 나지 않는 신제품 개발 계획도 밝혔다.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 소재로 도마를 제작하면 김자국이 남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이 사장은 “지금도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제품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든다”며 “사업이 안정권에 오르면 후배 사업가를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김우식 대표 “명품가죽 시장 공략”

(루사트)

가죽인쇄 독자기술 보유 천연효소 활용 염료·가죽 결합



첫 창업이었다.

“브랜드 로고가 가죽 인쇄된 명품 가방들은 진짜 가죽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루사트의 핵심 기술을 묻자 김우식 대표(사진)가 던진 질문이다. 루사트는 천연 가죽 표면에 천연효소를 활용해 인쇄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기술을 보유한 건 국내외를 통틀어 루사트가 유일하다.

기존 기술로 천연가죽에 바로 인쇄하면 갈라지거나 벗겨져 오래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인공 소재와 달리 가죽은 모공이 불규칙하게 퍼져 있고 조직도 치밀하지 않다.

김 대표는 “루사트 기술은 효소를 활용해 가죽과 염료를 완전히 결합하기 때문에 염료가 소재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가 명품 브랜드 가방도 로고를 프린팅한 부분에 합성피혁을 사용하는 것은 기존엔 천연가죽에 인쇄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시중에 나온 가죽에 프린팅한 것처럼 보이는 제품은 대부분 합성피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신축성과 통기성이 사라져 천연가죽과는 감촉부터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천연가죽 인쇄 기술을 개발한 건 10여 년 전이다. 서울대 화학공학과 박사 과정에 있던 김 대표는 천연효소를 활용한 산업용 도료를 개발했다. 도료 개발 기술을 활용해 바다제 회사를 차린 게

당시엔 지금보다 공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사업화할 엄두를 못 냈다. 이후 지속적으로 공정을 단순화하면서 인쇄하지 않은 가죽제품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 경쟁력이 생기자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다.

김 대표는 “천에 실크프린팅으로 인쇄 하듯 가죽에도 한 번에 인쇄할 수 있도록 공정을 단순화했다”고 했다.

대형 패션 브랜드에 인쇄 가죽을 납품하는 게 최종 목표다. 천연가죽 인쇄 기술을 알리고 소비 투자를 충당하기 위해 가죽 완제품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붉은 가죽 위에 손금으로 무늬를 인쇄한 지갑 등이 대표적이다. 붉은색과 금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중국 시장을 겨냥했다. 김 대표는 “루사트가 가죽제품으로 내놓은 첫 시제품”이라며 “올해 첫 매출 목표를 16억원으로 잡고 미국과 중국의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중심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에이치케이, 차세대 레이저가공기 2종 개발

22일 부산 국제기계대전 참가

산업용 레이저 가공기 생산업체 에이치케이(HK)가 30년간 축적한 기술력을 토대로 차세대 레이저 가공기를 개발했다.

에이치케이는 오는 2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9회 부산 국제기계대전’에서 레이저 빔 변형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레이저 가공기(PS3015 FIBER 10 kW, FL3015 FIBER 4kW) 2개 제품(사진)을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에이치케이는 4차 산업혁명 및 스마트 공장 기술과 파이버(광섬유) 레이저 기술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레이저 빔 변형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제품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레이저 가공기술은 파이버 레이저 저압 절단과 파이버 레이저 초저압 절단에 이어 빔 형상 가변에 의한 절단 등으로



개선돼 기존 이산화탄소(CO₂)레이저와 같은 품질 및 가공 속도로 절단할 수 있다. CO₂레이저는 CO₂를 이용해 레이저 빔(광선)을 만들고 유리를 통해 빔을 이동시키는 반면 파이버 레이저는 빔이 광섬유를 통해 이동하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에이치케이는 고출력 레이저 가공기 시장에서 독일 T자, 스위스 B사 등 글로벌 업체들과 경쟁하고 있다.

이 회사는 전시회 기간인 오는 24일 파

이버 가공기 최신 기술 동향 발표 등 세미나도 연다. 세미나에서는 실제 장비 운영자들이 응용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고난도 작업을 쉽고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고객과 응용기술 부문 전반에 걸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에이치케이는 또 14일 수도권 소재 기업들을 위해 차세대 레이저기술 발표, 신제품 시연, 세미나 등으로 이뤄진 ‘오픈 하우스’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동천, 통합마케팅센터 신설

종합 전자제품 동천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 과천에 마케팅 통합 조직을 만든다.

올해 창립 31년을 맞은 동천그룹은 13일 각 계열사에 산재한 영업조직을 한데 모아 KT와 천스마트타워에 ‘그룹 통합마케팅센터’를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건설 관련 계열사인 은성산업과 은성건설 본사를 이곳으로 이전해 성과 중심의 책임경영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988년 설립된 부천수출은 모태로 하는 동천그룹은 고단열EPS(발포폴리스티렌)와 압출보드 및 고속플렉시블우레탄보드 라인을 통한 준불연 우레탄폼단열재를 생산하는 내단열재 사업 부문, EPS와 글라스미네랄울은 물론 폴리우레탄단열재(PUR)를 활용한 복합건축자재 사업 부문, 건설 사업 부문 등 총 3개 사업 부문, 10개 계열사로 이뤄져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전국 순회 설명회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홍보하는 커피 트럭을 다음 달 5일까지 전국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행사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채용공제 사업을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이 5년간 3000만원을 모으도록 도와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5년 동안 청년근로자는 월 12만원, 기업은 월 20만원 이상을 각각 적립하고 정부는 적립 기간 최초 3년간 1080만원을 지원한다. 만기공제금 중 근로소득세 50% 상당을 감면받는다. 기업도 부담한 공제납입금에 대해 100% 손비 인정과 25%의 세액 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형수 중진공 일자리지원본부장은 “커피 트럭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를 홍보하는 커피트럭.

업 근로자, 청년 등과 소통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진공 등은 지난해 운영 경험을 살려 올해는 경남 진주시 경성대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전국 산업단지를 순회할 예정이다. 한 달 행사기간 동안 커피를 나눠주면서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스탠탑비뇨의학과의원 전립선비대증 치료 당일시술가능!

“검사부터 시술! 하루에 가능합니다”

◆스탠탑 발기부전 치료

- 해면 체내 자가주사요법
- 체외충격파 치료기 ED1000을 이용한 시술
- 성기동맥혈류충전기를 이용한 시술
- 굴곡형음경보형물 삽입수술
- 팽창형음경보형물 삽입수술

◆스탠탑 조루수술

- 배부신경차단술과 음경확대수술은 동시에 시행 가능합니다. (감각이 둔화되어 조루개선효과)

◆스탠탑 전립선 질환 치료

- 템프롤을 이용한 전립선 증상 완화
-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TURP)
- 전립선비대증(레볼릭스를 이용한 시술)
- 유로리프트를 이용한 시술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결찰술)

Urology & Andrology Clinic
StanTop
스탠탑비뇨의학과의원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수술실 멸균 / 수술 기구의 철저한 살균소독
- 1회용 수술도구 사용 / 수술복, 수술캡, 수술도구 상시 안전점검
- 식약청 사용승인 재료 사용

◆수술 후 당일 퇴원이 가능합니다.

스탠탑비뇨의학과의원에서는 자체 검사실을 보유하고 있고, 시술 후 당일퇴원이 가능합니다.

◆당뇨병이 있어도 시술가능합니다!

고위험군의 당뇨환자를 철저히 가려내 엄격한 사전 사후 관리로 부작용을 줄이고자 합니다. 공복 시와 식후 혈당은 물론, HbA1C장비시스템을 활용 정밀 체크 및 사전조치 후 시술을 진행

◆통증이 적습니다.

스탠탑비뇨의학과의원에서는 척추마취와 마취젤리 투여를 이용하여 통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환자의 마음을 가슴으로 공감하며,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 스탠탑비뇨의학과의원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남 성 수 술 문 의
1522-7589

전립선시술문의
1522-7520

(의료광고 심의번호 제180327-증-83953호/ 제180511-증-84065호)

※ 수술 후 요배, 출혈, 요실금 및 저극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